

간세이 시대(1789~1801 년)부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,
긱사와 대교는 오랜 세월에 걸쳐 흙, 나무, 콘크리트로 형태를 바뀌가며
나카센도(中山道)를 걷는 사람들을 이어온 다리임을 알 수 있다.

근래에는 쇼와 34 년(1959 년)의 이세만 태풍, 쇼와 58 년(1983 년)의 태풍
10 호 등으로 긱사와가 범람하여 지금의 콘크리트 다리로 바뀌었다.

이 다리는 지금도 이곳에 사는 야부하라의 주민, 나카센도를 오가는
여행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다리이다.